

토마스 하디의 『귀향』: ‘결정론의 침식’과 ‘우연 길들이기’*

이 복기
 (전북대학교)

Lee, Bok-ki. “Thomas Hardy’s *The Return of the Native*: ‘Erosion of Determinism’ and ‘Taming Chance.’”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8.1 (2022): 101-117. This paper aims to prove that Thomas Hardy expressed his idea of the relation between determinism and chance in *The Return of the Native*. Influenced by the contemporary science and philosophy, Hardy’s belief in determinism faded and he came to feel more explicitly the effect of chance in human history. He structures the novel with Egdon Heath symbolizing determinism and eternity in the beginning, and with a dice throwing game symbolizing pure chance in the midd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s of the novel fluctuates within the sphere of the influence between the two axes. The human relation is always affected by chance and coincidence and the meaning of one’s action is distorted. The way to tame chance and keep one’s meaning is depicted as the major method of controlling the rule of chanc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Thomas Hardy, *The Return of the Native*, determinism, chance, taming chance.

I. 서론

토마스 하디(Thomas Hardy) 소설에 대한 논의에서 하나의 커다란 중심축을 이루는 주제가 결정론이다. 하디가 종교적인 세계관과 거리를 두고 당대 사상의 토대로 새롭게 등장한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의 『종의 기원』(*The Origin of*

* 이 논문은 2020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Species)과 그의 주장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시킨 토마스 혁슬리(Thomas Huxley)나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같은 학자들의 저작을 읽고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결정론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의 결정론적 세계관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강력한 힘에 의한 개인의 지배를 가정하는데, 하디의 작품 중에서는 그 힘들이 『캐스터브리지의 시장』(*The Mayor of Casterbridge*)에서 “환경이라는 운명”으로 표현되거나, 『더 베빌가의 테스』(*Tess of the d'Urbervilles*)에서는 “신들의 대장”(384)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귀향』(*The Return of the Native*)에서는 클림 요브라이트(Clym Yeobright)가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뒤돌아보며 자신이 “운명에 의해 혹사당했다”(386)고 생각하는 대목에서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하디 자신이 언급했듯이 이러한 그의 표현들은 하나의 체계적인 사상의 표현이라고 보기是很 어렵다. 그래서 하디는 “나는 어떤 철학도 갖고 있지 않다—내가 설명하는 것은 단지 마술 쇼에서 당황한 아이의 그것처럼 혼란스러운 인상들의 더미일 뿐이다”(Hardy F. 410)라고 주장한다. 하디의 독서 편력을 고려한다면 그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의 소설 속에서 결정론이 일관성을 가진 관점으로서 세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하디가 결정론적 사고를 전개하는 경우는 대부분 서사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리하는 단계이다. 『귀향』에서는 클림이 아내 유스타시아 바이(Eustacia Vye)와 데이먼 와일디브(Damon Wildeve)가 사망한 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평가할 때 결정론적 표현이 사용된다. 결정론은 초월적인 종교적 거시관점을 대체하고 행위주체를 전능한 신에서 운명이나, 환경, 의지 등으로 대체한 사상의 체계이다. 하디에게 다위니즘은 기독교를 대체한 또 다른 거시적인 관점을 제시한 사상이다. 로저 로빈슨(Roger Robinson)이 하디소설에서 “다윈적인 거대 규모의 시간적 배경은 하디가 그의 인물들을 그 속에서 움직이도록 한다”(131)고 말한 것처럼, 그것은 기독교적 거시적 세계관을 대체하는 세계관이다. 하지만 거시적 틀 안에서 진행되는 개개인의 삶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매이고 우연성의 지배를 받는다. 미시적인 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규칙성의 기저에는 무한한 우연성이 펼쳐져 있고 그 우연적인 사건들의 연쇄를 일정한 틀로 범주화한 것이 규칙이다. 하디 소설에서 서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계산과 계획을 깨뜨리며 우

연하게 벌어지는 사건들이다. 우연적인 사건들로 점철된 개인의 삶을 우주적인 거시관점에서 희고하면 신, 운명, 환경과 같은 용어들을 동원하여 설명할 수 있지만, 세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개인은 조금이라도 파국적인 우연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 계산하고 예측하면서 걸음을 딛게 된다. 이 논문은 신적인 거시적 시각에 도달할 수 없는 조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우연성에 지배를 받으며 우연한 사건들이 하디 소설의 서사의 방향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귀향』 분석을 통하여 증명할 것이다. 하디의 『귀향』은 운명론적인 거시적 관점은 거대 담론의 차원에서 우연성이 지배하는 미시적 인간사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역할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II. 필연성과 우연성

이언 학킹(Ian Hacking)은 20세기의 물리학에서 “가장 중대한 개념상의 사건은 세계가 결정론적이지 않은 발견이다”(1)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양자역학의 발견을 말하지만, 20세기 양자역학에서 일어난 중대한 발견은 사실 더 긴 시간 동안 천천히 벌어졌던 변화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과정을 19세기에 이미 “세계가 규칙적이지만 보편적 자연법칙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게 가능해졌다”고 말하면서 “우연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다”고 정리한다(1). 18세기 이전의 이성의 시대에는 우연을 미신이나 비이성과 같이 취급하였다.

이성의 시대 동안, 우연은 천박한 자들의 미신이라고 불렸다. 우연, 미신, 천박함, 비이성은 한 가지였다. 이성적인 사람은 그런 것들로부터 눈을 돌리고서 혼란을 벤치 않는 법칙의 덮개로 덮을 수 있다. 세계는 자주 제멋대로로 보인다고 말들 하지만, 그것들의 내부 분출의 절대적인 작용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일 뿐이다.

Throughout the Age of Reason, chance had been called the superstition of the vulgar. Chance, superstition, vulgarity, unreason were of one piece. The rational man, averting his eyes from such things, could cover chaos with a

veil of inexorable laws. The world, it was said, might often look haphazard, but only because we do not know the inevitable workings of its inner springs. (Hacking 2)

계몽과 이성의 시대에는 신을 대체한 보편적 법칙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믿음이 진리였기 때문에 우연은 미지의 영역일 뿐이고 법칙의 지배를 회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우연은 엄격하게 조사하면 단순히 부정적인 말일 뿐이고 자연 세계에서 실체가 있는 실질적 권능을 의미하지 않는다”(that chance, when strictly examined, is a mere negative word, and means not any real power which has anywhere a being in nature, 95)는 데이빗 흄(David Hume)의 명제가 이성의 시대에 우연을 이해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핵킹은 19세기부터 유행하기 시작하는 개연적, 확률적 사고가 우연성의 존재를 받아들이고서 필연적이고 결정론적인 사고를 서서히 대체해간 결과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19세기는 전환의 시기로 필연과 우연을 중심으로 한 사고체계가 경합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 지점에서 20세기 물리학의 발견이 가져온 필연과 결정론의 혼을 인간사에 필연성은 존재하는가라는 논리 철학적 문제로 논의의 방향을 전환하겠다.

백훈승은 「인간사에 필연적인 사건은 존재하는가?」에서 인간사에 필연적인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논증을 위해 그는 먼저 우연의 의미를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필연의 모순개념으로서의 우연”으로, 필연은 결정론과 우연은 비결정론과 통하는 개념으로 분류하고 둘의 차이는 “필연은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가 하나로 정해져 있어서 그 어떤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반면에, 우연은 결과가 둘 이상일 수 있는데, 가능한 둘 이상의 결과 중에서 어떤 하나로 결정된 경우를 가리킨다”(35)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앞의 의미가 우연이 사건에 사용된 경우라면, “존재자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본질적인,’ [nonessential], ‘우유적(偶有的)인’ [accidental], ‘종속적(從屬的)·부차적(副次的)인’ [subsidiary]”(35) 등의 의미라고 나누어 설명한다. 존재자에 사용될 때의 우연의 모순개념으로서 필연은 ‘본질적인’이나 ‘본성적인’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우연의 두 번째 의미는 “의도하지 않음” 그리고 “계획하지 않음”으

로 “우발적인”이라고 분류한다(36).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미의 우연은 “예상하지 못함”(38)이고 이것은 두 번째 의미의 “의도치 않음”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디의 『귀향』을 분석하는 할 때 먼저 필연과 모순되는 첫 번째 의미로서 우연을 논의하고 다음으로 “예상치 못함”과 “의도치 않음”이라는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귀향』은 우연과 필연이라는 두 가지 축을 세우고서 둘 사이의 자력의 작용에 따라 서사의 방향을 바꾸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한쪽 끝에 서 있는 필연의 축은 에그던 황야(Egdon Heath)로 대표된다. 에그던 황야는 에이브롬 플라이쉬만(Avrom Fleishman)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 소설에서 “행동의 주요한 행위자”이면서 “사건들로부터 출현하는 가장 기억할 만한 대상”이다 (145). 에그던 황야는 존재자로서 변함이 없는 동일성을 상징한다. 에그던 황야가 이 소설의 배경으로서 갖는 상징적 의미는 소설의 첫 장에서 표현된다.

지금처럼 저녁과 밤사이에 에그던의 중앙 계곡에서 가시나무 그루터기에 기대면, 눈은 시야가 닿는 전 범위를 가득 채우는 황야의 능선과 정상을 벗어난 세계 어디에도 도달하지 않고 그 아래와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머리 위 별들처럼 선사시대부터 변치 않았고, 변화 위에서 떠돌고 억제할 수 없는 새로움에 놓락당한 마음에 평행수 같은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거대한 불침의 장소는 바다도 갖지 못하는 고대의 영원성을 지녔다. 누가 특정한 바다가 오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태양열에 증발하고, 달빛에 으깨져도, 그것은 일 년 만에, 하루 만에, 아니 한 시간 만에 회복된다. 바다도 변했고, 별판도 변했고, 강들과, 마을들과, 사람들도 변했지만, 에그던은 그대로이다. 표면은 날씨에 파괴될 정도로 가파르지도 흥수나 퇴적의 피해자가 될 정도로 평평하지도 않다. 오래 된 신작로와 곧 언급하게 될 훨씬 더 오래 된 봉분(오랜 존속으로 이제는 거의 결정화되어 버렸다)을 제외하고 사소한 불규칙한 것들도 도끼나, 쟁기, 삽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지난 번 지질학적 변화의 촉감으로 남아 있다.

To recline on a stump of thorn in the central valley of Egdon, between afternoon and night as now, where the eye could reach nothing of the world outside the summits and shoulders of heath-land which filled the whole circumference of its glance, and to know that everything around and underneath had been from prehistoric times as unaltered as the stars

overhead, gave ballast to the mind adrift on change, and harassed by the irrepressible New. The great inviolate place had an ancient permanence which the sea cannot claim. Who can say of a particular sea that it is old? Distilled by the sun, kneaded by the moon, it is renewed in a year, in a day, or in an hour. The sea changed, the fields changed, the rivers, the villages, and the people changed, yet Egdon remained. Those surfaces were neither so steep as to be destructible by weather, nor so flat as to be the victims of floods and deposits. With the exception of an aged highway, and a still more aged barrow presently to be referred to—themselves almost crystallized to natural products by long continuance—even the trifling irregularities were not caused by pickaxe, plough, or spade, but remained as the very finger-touches of the last geological change. (6)

에그던 황야의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된 단어들은 “변하지 않았고”, “영원성”, “그대로이다”, “결정화” 등이다. 이 단어들은 에그던의 사건적, 그리고 존재자적 특성이 변치 않고 결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귀향』의 공간적 배경인 에그던 황야는 영원성과 필연성을 상징하는 장치로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원성과 필연성의 모순 개념으로 에그던 황야에서 벌어지는 인간사를 지배하는 우연성과 임의성은 주사위 놀이로 상징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백훈승 36, 재인용)고 표현한 것처럼 신이라는 절대적 결정성과 대비되는 우연과 확률의 지배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장치는 주사위 던지기일 것이다. 하디는 『귀향』의 서사전개가 커다란 방향 전환을 맞이하는 중반부에 주사위 놀이를 배치한다. 클림과 유스타시아가 자신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식을 강행한 뒤 관계가 소원해진 채로 지내던 요브라이트 여사가 남편이 남겨둔 유산을 분배하고 전달함으로써 관계를 회복해 보려는 의도로 클림과 토마신(Thomasin)에게 각각 50기니씩을 전달하는 임무를 크리스천 캔틀(Christian Cantle)에게 맡기면서 주사위 놀이가 등장하게 된다. 크리스천이 임무수행을 위해 와일디브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맞닥뜨린 광경은 주사위를 던져 승자가 상품을 차지하는 게임 상황이었다. 우연과 운에 따라 승자가 결정되는 순수한 우연성을 활용한 놀이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 순수 우연성을 토대로 한 놀이에서 승

리해 여성용 의복을 상으로 받게 된 크리스천은 자신에 대한 완전히 달라진 관점을 취하게 된다.

“확실히, 내가 이렇게 행운을 지닌 채 태어났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라 생각해야지.” 크리스천이 반쯤은 자신에게 말하듯 던졌다. “이 주사위들은 얼마나 재미난 물건들이야. 우리 모두의 강력한 지배자이지만 내 지배력 아래 있다니. 이 후로는 아무것도 두려워 할 게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어.” 그는 주사위를 하나씩 다정하게 만졌다. 그는 원편 가까이에 있던 와일디브에게 비밀스럽게 속삭이듯 말했다. “돈을 증가시키는 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제가 지닌 그녀의 것도 있으니 제가 당신의 가까운 관계자에게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는 마루에 놓인 돈이 든 부츠 한 쪽을 두드렸다.

“Well to be sure,” said Christian half to himself. “To think I should have been born so lucky as this, and not have found it out until now. What curious creatures these dice be—powerful rulers of us all, and yet at my command. I am sure I never need be afeard of anything after this.” He handled the dice fondly one by one. “Why sir,” he said, in a confidential whisper to Wildeve who was near his left hand, “if I could only use this power that’s in me of multiplying money I might do some good to a near relation of yours, seeing what I’ve got about me of hers—eh?” He tapped one of his money-laden boots upon the floor. (223)

크리스천은 주사위 놀이에서 승리하고서 자기가 인간의 지배자인 우연성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행운의 사나이라고 생각한다. 하디는 에그던 거주자들 가운데서 정상성의 범주를 가장 벗어난 인물인 크리스천이 우연성과 개연성의 원리를 지배하는 초월적 능력을 지녔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서사의 방향 전환을 시도한다.

핵킹은 “숫자의 쇄도, 결정론의 침식, 그리고 정상성의 발견이 산업혁명이라는 거대 주제에 자리했다”(5)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결정론의 약화가 우연성의 지배를 냉고, 그것을 길들이기 위한 숫자를 활용한 예측이 산업화와 함께 중요해졌음을 말하고 있다. 결정론과 보편적 법칙에 대한 신념이 와해되고 우연이 서서히 사고를 지배하게 되면서 혼란과 불안을 자아내는 우연성을 길들일 필요

가 절실해진 것이다. 결정론과 보편적 법칙에 근거한 사고를 대체한 것이 개연성과 확률적 사고이다. 개연성과 확률을 중심으로 한 사고의 결과로 다수와 소수 사이의 구분이 지어지고 다수에게 정상성과 소수에게 비정상성이라는 특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크리스천은 에그던 황야 거주민 중에서 정상성의 범주로부터 가장 멀리 벗어난 비정상적인 인물이다. 크리스천은 남성성이 결여된 인물로 “어깨가 없[고]”(22), “어떤 여자도 결혼하지 못할”(23) 모호한 성정체성을 가져서 남성과 여성의 범주를 벗어난다. 그는 그믐에 태어난 남자는 남자가 아니다,라는 뜻의 속담 “달이 없으면, 남자도 없다”(24)를 믿으며 자신이 남성성이 결여된 존재로 태어나 모든 여성들에게 거부를 당할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에그던 황야가 상징하는 결정론적이고 운명론적인 사고를 한다. 이렇게 결정론적 사고구조를 가진 크리스천이 와일디브와 백 기니의 자본금을 가지고서 황야에서 주사위 놀이를 벌인다. 크리스천이 가진 돈을 모두 잃고 디고리 벤(Diggory Venn)이 나타나 촛불에 의지한 채 와일디브와 게임을 이어갈 때, 주변에 날아드는 벌레들의 묘사는 의미심장하다.

게임은 어느 한 편에 큰 유리함이 없이 한 번은 이쪽이 이번에는 다른 쪽이 번갈아 가면서 이겼다. 그렇게 거의 20분이 흘렀다. 이번에는 황야 날벌레, 나방, 그리고 다른 야간 날벌레들이 촛불에 유인되어 등 주변을 날거나, 불꽃으로 날아들고, 두 노름꾼의 얼굴 주위에 부딪혔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은 그들에게는 전장처럼 광대하고 중요한 경기장인 평평한 작은 돌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The game fluctuated, now in favour of one, now in favour of the other, without any great advantage on the side of either. Nearly twenty minutes were passed thus. The light of the candle had by this time attracted heath-flies, moths, and other winged creatures of night, which floated round the lantern, flew into the flame, or beat about the faces of the two players. But neither of the men paid much attention to these things, their eyes being concentrated upon the little flat sone, which to them was an arena vast and important as a battle-field. (23)

순수 우연성을 상징하는 주사위 놀이가 영원성과 결정성을 상징하는 황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에 하루살이 같은 곤충들이 불빛을 보고 날아드는 장면은 우연과 필연을 확연히 대비시키고 있다. 두 등장인물은 게임 자체에 몰두해서 게임이 벌어지는 돌 판 밖의 세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상태이다. 자연세계와 인간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힘인 우연을 작품은 표현하고 있다. 『귀향』은 서사의 초반과 중반에 필연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에그던 황야와 우연성과 찰나성의 상징인 주사위 게임과 곤충의 세계를 배치하고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그려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우연 길들이기

앞 장에서 인용했듯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인 에그던 황야는 선사시대부터 변하지 않고 그곳에 존재하면서, “변화에 표류하고 제어할 수 없는 새로움에 괴롭힘 당하는 마음에 안정감을 주었다”(6). 에그던 황야를 “바다가 변했고, 들판이 변했고, 강, 마을, 사람이 변했지만 에그던은 여전하다”고 형용하는 데에 야훼의 성품을 투영했고 종교가 갖고 있던 절대성을 대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변화가 없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환경을 활용하여 생활하고, 외부의 세계와는 단절된 듯이 살아간다. 하디의 다른 소설에서처럼 시간적 배경이 되는 19세기 초반은 “제어할 수 없는 새로움”이 근대성(modernity)이라는 이름으로 영국 전체를 휩쓸던 시기였지만, 이곳에만은 여전히 그 힘이 미치지 않았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관습을 지키면서 변치 않는 에그던과 어울리며 지낸다. 이곳에서 11월 5일의 불꽃축제는 화약음모사건(Gunpowder Plot)을 기념하기보다는 겨울의 시작을 알리며 토르와 워든(Thor and Woden)에게 드리는 고대의 제사를 이어받은 행사이다(15). 변함이 없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삼을 때 웬만한 변화와 부침은 사소하고 미세한 진동과 같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에서는 미세한 변화와 작은 아픔도 우주의 변화처럼 커다랗게 느껴질 뿐이다. 우연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변화나 아픔을 통제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려는 것이 개인의 삶이다. 알버트

엘리엇(Albert P. Elliott)은 하디의 초기 작품에는 우연이 서사를 지배하지만 뒤로 갈수록 결정론적인 관점이 더 두드러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하디의 작품 활동 중반기에 해당하는 『귀향』에서는 “우연이 부차적 역할만 담당한다”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에는 오로지 한 번의 주요한 우연적 사건이” 나타날 뿐이라고 결론짓는다(67). 그 한 번은 요브라이트 여사가 아들집에 방문했다가 응답 없는 문을 뒤로하고 떠났던 장면이다.

엘리엇의 주장과 다르게 우연의 지배력은 이 소설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단지 우연의 지배력을 길들이고 통제하는 힘이 강했을 때 우연성의 힘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여 자기의 의도를 달성하게 하는 것이 우연성을 지배하는 방식이다. 이 소설은 다른 사람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서 목적을 이루는 인간관계를 게임을 활용하여 비유적으로 사용한다. 앞에서 언급한 크리스천과 와일디브, 디고리의 주사위 게임이 절대적인 우연을 상징하는 게임이라면, 그러한 우연의 작용을 적절히 예측하고 통제하는 행위는 우연성을 길들여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활동으로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반복된다. 크리스천은 메신저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망각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순수한 우연성이 지배하는 주사위 놀이의 세계에 뛰어들어서 전달해야 할 돈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고 만다.

메신저인 크리스천이 게임에서 어머니와 고모의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던 100파운드를 잃자, 요브라이트 부인이 의도했던 자식 부부와의 화해와 조카에 대한 경제적 원조라는 의미는 사라지고 왜곡된다. 이제 백 파운드에 의미를 부여하는 권한은 와일디브의 손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도박을 바라보았던 디고리의 개입은 다시 한 번 의미화 과정을 되돌리는 기회를 만든다. 디고리는 이 소설에서 어디에든 존재하는 듯한 인물로 토마신의 일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나타나서 도움을 줌으로써 우연성의 지배를 통제하는 능력을 지닌 것처럼 그려진다. 그가 백 파운드가 걸린 게임의 최종 승자가 되어 선물이 올바른 수신자에게 전달되고 요브라이트 부인의 의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연성을 통제할 것만 같다. 하지만 사랑하는 토마신의 주위에 펼쳐하면서 그녀에게 작용할 수 있는 불운을 차단하는 신적 능력을 부여받은 듯한 디고리

의 능력도 우연성의 힘을 완전히 제어하는 데는 실패한다. 백 파운드 선물의 수신자가 토마신 한 사람이 되면서 결과는 “돈 가치의 분실이 자아낸 것의 세 배보다 더한 분운을 야기[하게 된다]”(236). 주사위 게임이 상징하는 우연성이 작용하여 요브라이트 부인이 의도한 아들 부부와의 화해는 이뤄지지 못하고 서로간의 의심이 더욱 커지고 갈등 또한 심화된다.

절대성과 결정성의 세계와 순수 우연성의 세계 사이에 사는 개인들의 관계는 우연성의 지배를 통제하면서 의도를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유스타시아이다. 그녀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게임으로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는 의지를 가장 강하게 표출하는 인물이다. 작품에서 이러한 유스타시아의 성향은 망원경과 모래시계라는 소품으로 부각된다. 대항해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두 기구를 가지고 다니는 그녀는 이성과 합리로 계산하고 예측하여 우연을 길들여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인물로 보인다. 소설의 도입부에서 토마신이 결혼 예정일에 디고리의 마차를 타고서 남편이 아닌 고모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장면에서부터 게임을 지배하려는 인물들의 의지의 작용이 표출된다. 유스타시아와의 애정관계가 자신의 의도대로 풀리지 않자 와일디브가 선택한 카드가 토마신과의 결혼이었다. 하지만 유스타시아의 강력한 영향력이 게임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날의 결혼은 무산되었고, 와일디브는 불꽃을 피워 신호를 보내는 유스타시아의 부름에 응답하고 만다. 유스타시아는 와일디브를 부른 그녀의 행동이 “엔도르의 마녀가 사무엘을 불러낸 것처럼 [그를] 부르고 제압해서 약간의 흥분”(61-2)을 느끼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와일디브가 토마신과 결혼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유스타시아에게 일격을 가했지만, 유스타시아는 그녀의 “권능을 보여[줌으로써]”(62) 다시 한 번 게임의 지배자가 자신임을 확증한다.

게임을 지배하고자 하는 유스타시아의 강력한 의지는 편재하는 것 같은 디고리가 토마신과 와일디브의 결혼을 그녀에게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장면에서 더욱 강렬하게 표현된다. 그녀는 토마신 같은 “열등한 여자에게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여자는 나와 내 의도 사이에 끼어들더니 정당하게 벌을 받고서는 당신[디고리]을 자신을 위해 간청하도록 보내다니”(89)라고 자신이 분노하는 이유를 표출한다. 그녀는 결국 에그던 황야의 따분한 삶으로부터 탈출시켜 줄 인물을 자

신의 배우자로 만들겠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이 주도하며 전개하는 게임에 토마신이 개입하여 무산시킬 뻔했다는 점에 분노한 것이고, 다시 한 번 자신이 게임의 지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디고리의 제안을 모두 거부한 것이다.

와일디브가 상품으로 결린 게임은 유스타시아가 그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자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된다. 에그던 황야를 탈출할 기회를 꿈꾸게 해주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자 그녀는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유스타시아는 새로운 게임에서 요브라이트 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클림이 시일을 앞당기고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은 채로 결혼을 감행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발휘하여 목적을 달성한다. 하지만, 결혼생활이 그녀의 꿈꾸었던 생활을 가져다 주지 못하자 그녀의 승리감도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변화가 없는 에그던 황야에서의 삶으로부터 탈출하여 새로운 사건들을 마주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생활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녀가 원했던 화려함과 변화가 넘치는 삶의 정수라고 할 만한 파리에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에그던 황야로 돌아온 남편 클림은 그녀의 환상과는 반대의 방향을 지향하기 때문에 게임의 승리가 그녀의 목적을 달성해 주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이다. 두 사람의 만남에서 유스타시아는 “황야를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할 때, 클림은 그것이 자신을 “가장 흥분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으며, 편안하게 해준다”고 대꾸하는 것으로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187). 그렇지만 둘의 만남의 결과로 유스타시아는 “과거는 공백이 되고, 그녀의 삶은 시작이 되었다”는 감정을 품게 되었고, 클림은 자신이 꿈꾸었던 “기획이 어느 정도 찬사를 받았고, 아름다운 여성이 그것[기획]과 연관을 맺게 되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188). 유스타시아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게임의 결과로 두 남녀의 만남이 성사된 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의미를 품고서 다음 만남을 고대하게 된다. 결국 처음부터 두 남녀의 결합이라는 게임에는 의도와 목적에 틈을 만드는 우연성이 작용했음을 알게 해주고, 승리한 게임의 결과가 유스타시아의 꿈을 이루어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유스타시아는 승리했지만 실패한 게임의 결과에 순응하지 않고 작은 일탈을 통해 자신의 주도권을 확인한다. 에그던에서의 삶이 외로움과 지루함만을 주기 때문에 결혼을 활용해 탈출하려 했지만, 결혼생활은 더한 외로움과 지루함을 맛

보게 했기 때문에 그녀는 작은 일탈들로 감정을 달래려고 시도한다. 축제에서 와일디브와 함께 춤을 추거나 그가 그녀의 집을 방문하여 만나는 정도가 그녀가 시도하는 일탈들이다. 이런 일탈들은 와일디브를 좀 더 과감해지도록 만든다. 그는 유스타시아와 자신이 각기 결혼을 통해 인척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심어린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믿고 클림이 있을 때에 그녀를 만나기 위해 오두막을 방문한다. 이 날의 사건에는 다른 예상치 못했던 우연이 겹쳐져서 거대한 파국의 계기로 작동한다. 와일디브가 클림과 유스타시아의 집에 들어가는 광경을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언덕에서 요브라이트 부인이 바라보았다. 디고리에게 부여된 넓은 시야가 이 대목에서는 요브라이트 부인에게 주어졌다.

요브라이트 부인은 백 파운드를 활용한 화해시도가 불발된 뒤, 다시 한 번 아들부부와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선물을 가지고 한여름 뼈약볕에 먼 거리를 걸어와 아들집 문을 두드릴 참이었다. 반복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여행 중에 엄습했지만 연못 주위의 하루살이들과 다른 별래들의 황홀에 찬 잔치를 보면 서 “자신의 여행이 결실을 거두리라는 희망이 마음속에서 짹터”(278) 오르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하지만 질리안 비어(Gillian Beer)가 관찰한 것처럼 이 장의 제목이 “닫힌 문”이라는 데에서 독자들은 “여행이 끝난 이후 그녀의 시간을 절망적으로 예견한다”(235). 그녀가 오두막에 도달할 때, 와이더브도 그 곳을 방문한 것이다. 이미 멀리서 그가 오두막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고, 아들의 작업용 기구가 걸려 있는 것까지 발견한 상태여서 그녀는 확신에 찬 채로 아들의 집을 두드렸다. 아들과 며느리, 방문객이 있는 아들집의 문은 그녀에게 열리지 않았고, 그녀는 상심한 채 되돌아가는 길에 기진해 쓰러지고 살모사에 물려 사망했다. 하필 그 날 낮잠에서 어머니의 꿈을 꾼 아들의 “엄마”라는 잠꼬대 때문에 화해의 의도를 담은 그녀의 선제적 행동에 담긴 의도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채 의미가 불분명한 행위로 잊힐 상태가 되고 만 것이다. 요브라이트 부인의 관계회복을 위한 주도적 행동은 두 번씩이나 우연성의 개입으로 그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 소설에서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관점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서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두 인물인 디고리와 요브라이트 부인의 주도적인 행동은 예기치 않은 우연성의 개입으로

의도치 않은 파국적인 결과를 산출한다.

앞선 사건 이후에 인물들의 의도와 여러 가지 행위들은 제 의미를 잃고 왜곡되는 일이 반복된다. 요브라이트 여사가 죽은 뒤에 남편의 의심을 받게 되자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유스타시아와 화해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결심한 클림이 보낸 화해의 편지는 하디 소설에서 여러 번 반복되듯이 수신자에게 도달하지 못 한다. 어쩌면 와일디브와 유스타시아의 익사를 막을 수 있었을 마지막 가능성을 담고 있던 편지는 잠든 손녀를 깨우지 않으려 한 할아버지의 자상한 배려 때문에 제때에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만다. 다시 한 번 선한 의도를 간직한 메시지는 우연성의 개입 때문에 그 의도를 달성하지 못한다. 그리고 와일디브와 유스타시아, 클림이 물길에 휩쓸렸을 때, 가장 넓은 안목과 실행력을 가진 인물 디고리가 두 사체와 생존한 클림을 물에서 끌어내는 것으로 복잡했던 관계는 종점에 도달한다. 우연성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파열을 메꾸기 위한 긍정적인 의도와 적극적인 행동은 다시 한 번 우연한 사건들과 부딪히면서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우연성을 길들이기는 실패하고 만다.

논의를 바꾸어, 우연성의 작용으로 왜곡되는 의도와 의미가 예상한 목적지를 찾아 제대로 전달되는 것은 불가능한가와 이 과정에서 개인은 우연의 지배 앞에서 무기력할 뿐인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는 디고리와 토마신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와일디브의 죽음 이후에 거대한 유산을 상속하였지만 클림과 함께 오두막에서 생활하는 토마신에게 디고리와 클림이 동시에 애정을 품게 된다. 세 사람의 관계는 요브라이트 부인과 클림, 유스타시아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연의 지배 아래서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갖게 한다. 앞선 관계에서처럼 이들의 관계에도 우연성은 강력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하디 소설과 다르게 이 소설이 행복한 결말에 도달하게 되는 데에는 우연성의 지배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 우연성을 길들이는 방식은 그것이 작용할 때에 즉흥적이고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않고 관계의 상대방을 신뢰하고 결심을 굳건히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메이풀 축제가 끝난 뒤에 바닥에 떨어진 장갑 한 쪽을 주어 들고 소중하게 가슴에 품는 디고리의 모습을 토마신이 발견한다. 디고리의 행동을 그의 춤 상대였

던 다른 여성을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해석하고 단념한 뒤 서둘러 클림의 애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하지만 토마신이 선부른 결정을 자제하고 마음을 바꾸지 않자, 시간이 흐른 뒤 디고리의 행동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자신을 향한 사랑이었음이 드러나게 된다. 자신의 하녀가 떨어뜨린 장갑이 몰래 끼고 나갔던 토마신의 것이었고, 그 사실을 알았던 디고리가 토마신을 생각하며 그 장갑을 소중히 가슴에 품었다는 의미가 밝혀진 것이다. 우연성의 개입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열매 맺지 못할 뻔했지만, 기다림과 신뢰의 결과로 디고리의 행동의 의미가 수신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다. 비극적인 결말에 이른 앞선 관계들과 비교했을 때 이 관계가 차이를 만든 지점이 바로 예상치 않게 발생한 우연적 사건들을 대하는 개인의 태도임이 의미심장하다. 우연성이 지배하는 세계이지만 신뢰가 바탕이 된 개인의 판단과 의지적 선택이 적절한 의미의 열매를 맺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IV. 결론

핵킹이 설명하는 것처럼 19세기는 “결정론의 침식”이 넓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우연성의 지배가 강해지면서 “우연 길들이기”를 위한 시도들이 진행되었다. 19세가 후반으로 흐를수록 우연성의 지배에 대한 믿음은 더욱 강력해졌고 20세기 양자역학에서의 발견은 필연과 우연 사이의 논의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백훈승은 필연과 우연의 관계를 논하면서 “인간사에 엄밀하게 필연적인 사건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사의 모든 사건은 우연적인 것”(50)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결정론은 결국 종교나 신화와 같은 담론의 영역에서 신념으로 지닐 수 있는 사고체계라는 뜻이다. 이성의 시대에는 보편적 법칙이 종교나 신화를 대체했다. 이런 사고체계가 오랫동안 인간사의 우연적 사건들을 해석하는 데 활용이 되어 인간의 두려움을 해소해왔다. 하지만 보편적 법칙마저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연성의 지배를 받아들이되 그것의 영향력을 조절하려는 시도가 개연성 개념과 그것의 확률적 계산의 형태로 실행되었다. 하디에게도 이런 세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고 그의 작품에 반영이 되었다.

『귀향』은 필연과 우연에 대한 하디의 사고의 변화를 확연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불가피한 새로움”으로 표현된 근대성의 침입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듯한 에그던 황야를 배경으로 부각시켜 거주민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그려내는 데에서 결정론의 힘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힘의 대척점이라 할 만한 순수 우연성의 상징인 주사위 놀이를 반대편에 배치하여 두 힘의 대립을 재현해낸다. 이 논문은 하디가 우연성의 지배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길들이는 방식을 소설이 표현하고 있음을 논증했다. 이 주장은 “하디의 철학은 우연의 지배를 받는 혼돈의 우주라는 개념으로부터 결정론의 지배를 받는 세계로 발전해 왔다”(58)는 엘리엇의 진술을 반박한다. 하디가 엘리엇의 진술처럼 후반으로 갈수록 결정론적 수사를 더 많이 사용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것은 필연은 인간 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하디가 오랜 과거의 담론을 문학적으로 활용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작품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하디가 세상을 우연성의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흐름을 인간 행위자가 일정한 규칙성을 부여하여 분절하면서 예측과 통제를 통해 의도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우리의 대응이라고 생각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인간의 예측과 안목이 신적인 완벽함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성은 인간의 예측과 통제의 빈틈을 비집고 나와 의도를 왜곡시키고 목적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우연성의 작용에 더해 개인의 성품과 의지가 함께 작용하여 의도와 의미의 화살이 도달할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귀향』에서는 클림의 이상주의와 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반복되는 지체가 관계가 비극으로 향하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또한 유스타시아의 지배욕과 우월감, 그리고 요브라이트 부인의 완고함이 우연성과 함께 어우러져서 비극을 완성시킨다. 하지만 디고리와 토마신의 관계는 신뢰에 기댄 적절한 기다림의 결과로 목적한 방향에 도달한다. 소설 속 사건들은 인간 세계는 우연성의 바다이고 개인은 자신의 성품과 판단력을 활용해 우연성을 적절하게 통제하여 자신의 의도를 실현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연성과 독특한 개성들이 빛어내는 드라마를 하디의 서술자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신의 시각을 빌어 모든 것이 결정되었던 것처럼 표현할 뿐으로, 그것으로부터 하디가 결정론적 세계관에 경도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Works Cited

- Beer, Gillian. *Darwin's Plot*. Cambridge: Cambridge UP, 2004. Print.
- Elliott, A. Pettigrew. *Fatalism in the Works of Thomas Hardy*. New York: Russell & Russell, 1966. Print.
- Fleishman, Avrom. “The Buried Giant of Egdon Heath.” Ed. Dale Cramer. *Critical Essays on Thomas Hardy: The Novels*. Boston: G. K. Hall, 1990. 141-155. Print.
- Hacking, Ian. *The Taming of Chance*. Cambridge: Cambridge UP, 1990. Print.
- Hardy, Florence Emily. *The Life of Thomas Hardy, 1840-1928*. Print.
- Hardy, Thomas. *The Return of the Native*. Oxford: Oxford UP, 1998. Print.
- _____. *Tess of the D'Urbervilles*. Oxford: Oxford UP, 1983. Print.
- Hume, David.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Oxford: Oxford UP, 2008. Print.
- Paek, Hun-Seung. “Are There Necessary Events in Human History?” *Studies in Philosophy East-West*. 93 (2019): 33-52. Print.
[백훈승. 「인간사에 필연적 사건은 존재하는가?」 『동서철학연구』 93 (2019): 33-52.]
- Robinson, Roger. “Hardy and Darwin.” Ed. Norman Page. *Thomas Hardy: The Writer and his Background*. New York: St. Martin's, 129-150. Print.

이복기 (전북대학교 / 교수)

주소: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이메일: lbokki@gmail.com

논문접수일: 2021. 12. 31 / 심사완료일: 2022. 02. 07 / 게재확정일: 2022. 02. 08